

채란양계 불황 돌파구를 찾는다

채란양계업계는 지난 3년간 악성적인 불황으로 많은 농가가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생산자는 그 돌파구를 찾고자 수매비축, 적자수출, 사회여론에 호소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못하고 있다. 채란양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자가 한데 모여 단합된 힘으로 뭉쳐 여론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새싹이 나와 자라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으면 밀알 하나 그대로 있다는 성구의 만고 불변의 진리는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면서도 실제 자기 희생이 따르는 썩어지는 아픔을 감당하기를 회피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례라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 계우회중 가장 규모가 큰 채란 양계업자의 모임인 한국계우회는 고태영 회장을 정점으로한 회장단 운영위원들이 우선 각자 한알의 밀알이 되어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고 1억 2천만원의 자금을 모아 계란의 비축으로 공급량을 조절하기 시작하였다.

계란의 비축은 정부나 축협에서도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감히 손을 대지 못하여 왔는데 이번 이러한 희생정신으로 비축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제 생산자들의 희생으로 새싹이 나왔으니 업계는 물론 모든 유관기관 단체 정부에서까지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고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南 斗 熙
(본회 편집부)

채란양계업은 지난 77년부터 78년 호황으로 생산량은 20~30%정도 증가하였으나 79년부터 불황의 국면으로 접어들어 10·26사태 발생으로 인한 정국혼란, 세계적인 경기위축 등의 어려움에 사료값이 90%이상 앙등되는가 하면 반대로 구매력은 감퇴되어 소비는 부진한 가운데 3년여 악성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해 구정에는 국군장병에게 위문품으로 200만개의 계란을 기증하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계란을 무료로 나누어주며 소비 캠페인을 벌이고, 체화된 물량소비를 위해 홍콩·중동지역에 수출을 하는 등의 부양책을 강구해 왔다.

한국계우회 계란 150만개 자체 수매비축, 양계협회·사료협회 계란 적자 수출

또 지난 2월 한국계우회(회장 고태영)에서는 회원중 대군사육업자 고태영, 한 순, 이학복, 주병한, 최명훈, 한종연씨 등 6명이 각각 2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의 기금을 모아 1차로 지난 2월 18일 회원농장에 체화되어 있는 계란 150만개(6천만원 상당)를 갈매리, 장현리, 포천, 일동, 동두천 등 5개 지역에 수매 비축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속 물량이 체화되고 가격이 하락되면 수매비축을 2차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한국계우회 총회에서 대군업자들로 새로 구성된 임원들이 난가지와 물량조절을 위해 금년 2월 2일 이사회를 개최, 부의안건으로 상정 2월 5일 임시총회에서 결정하여 정부 또는 축협에서 지원해 주기전에 양계인 스스로 자신의 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회원이 경영하는 50여개 농장에서 계란을 수집해 작은 농장은 5천개부터 큰농장은 10여만개까지 2~3일 분을 비어있는 양계장의 창고에 집합시켜 보관하고 그 대금은 현시세로 현금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축하여 시중물량의 조절과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다. 비축된 물량은 3~4월 수요기에 계획에 의거 조절해서 출하해 남는 차액은 앞으로 계란가격 조절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금년중 계속적으로 실시해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물론 이러한 생산자들에 의한 공급조절 사업은 수익보다는 적자의 위험부담을 안아야 되며 적자는 이들 6명의 양축가들이 업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자기 희생 정신이 있기에 이번일도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상운)는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의 협조를 얻어 지난 2월 25일 채화된 계란의 처분을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에 신선한 대란 1콘테이너(27만개)를 수출하였다.

사료협회가 회원사들의 협조로 특별 홍보기금 1천만원을 모금해 수출시 생기는 적자 중 1천만원(3콘테이너 분) 부담키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양계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양계협회는 한국계우회의 협조로 계란을 수거, 포장하여 수출한 것이다. 수출은 계란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계획이다.

이렇게 채란업계는 지난 2년 동안 전례없는 불황을 생산자 스스로 또는 관련기관의 응급처치적인 쇼크요법으로 지탱해 나왔으나 현재 전양축가가 사료 공장에 진 사료외상대금이 무려 1천억원이나돼 더이상 양축가로서는 외상을 질수도 없고 사료회사측에서는 그 부담을 지기에는 그 자체가 포화상태에 와 있는 것이다.

양계농가 사료외상대금 누적으로 빈사상태

한국계우회 총무이며 본회 이사인 노광순 씨에 의하면 현재 사료공장에 질 수 있는 외

상은 최고수준에 와 있어 더 이상 사료공장 측에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달 누적되는 적자 폭을 사체를 끌어들이야 할 입장으로 대부분의 양축가들이 현 상태에서 전업을 하고자 해도 그간의 사료외상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한다.

자금력이 있는 큰 양계장에서는 그래도 폐업을 하면 땅을 처분하든가 해서 빚은 갚을 수 있으나, 자금력이 없는 농장주는 폐업을 하는 경우 소유 재산보다 사료외상대금이 많아 막연히 호전될 시점을 기다려 빚이라도 갚을 수 있을때를 생각하며 참고 기다린단다.

더욱 현 수수에서 규모를 줄이면 사료물량이 줄어 사료회사 측에서는 외형은 줄고 회전기간이 길어지니 사료회사측에서도 많은 애로가 생기게 되는 관계로 사육규모는 줄이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양계농가는 경영이 부실하나 사료공장의 채무때문에 마음대로 전업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란의 기로에 서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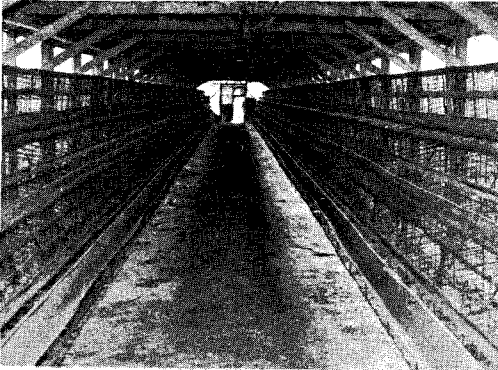
고태영 한국계우회장은 이러한 어려운 업계사정 속에 양계인은 생산자 스스로 과감히 계란 감산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업계에서는 단합하여 정부실무자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소비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고회장은 그동안 많은 양축가들(특히 채란업자)이 부담한 축산안정기금을 그동안 최고기수입, 돼지고기 육계수매비축 등에는 많은 활용을 하였으나 채란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생산자 친목단체인 계우회가 수매비축을 하는 문제 등에 정부는 조그마한 힘이라도 출하조절에 협조를 해주기를 호소하며 많은 채란양계업자들이 현재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감안 해 기금을 활용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줄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계란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라 살아있는 생



△ 한국계우회의 계란 수매비축 (생산자 자신들이 기금을 조성해 수매)



△ 많은 채란 양계장이 어려움으로 케이지 만 양계장을 지키고 있다



△ 체화계란을 소비하기 위해 본회와 사료 협회가 사우디로 계란을 수출하였다

물임에 장기간 비축이 어려워 생산이되면 빠른 시간내 소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과잉생산에 앞서 생산자 모두가 단결하여 생산량을 과감히 20~30% 감산시켜야 한다.

또 사회의 경제여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력은 감퇴되고 있어 적극적인 소비촉진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한의학 측면의 금기를 해명할 수 있는 연구,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소비촉진 홍보, 학교급식 보급, 계란 가공공장의 건립, 새로운 대중요리법 개발 등으로 소비를 확대 시켜야 한다.

정부는 채란양계를 위한 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생산업체는 이를 위해 더욱 긴밀한 대화를 계속해 행정부의 실무진들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

채란업자는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안정업계 발전을 이룩해야

이러한 모든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자는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 단결해야 할 것이며 하나의 단합된 힘으로 뭉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노광순 한국계우회 총무는 그간 일부채란업자가 양계 협회 밖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기능의 분산으로 결국 채란업계의 힘만 약세가 되었다고 전하고 이는 채란업계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해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하고 채란업의 발전을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한데 뭉쳐야 한다고 전했다.

비온후의 땅은 더 굳어진다는 말과 같이 채란양계업은 그동안의 불황을 이제 양계인 스스로 딛고 일어서야 할 것이다. 감산운동, 유통구조개선, 소비촉진, 채란양계 활성화기금 운용 등의 모든 문제는 양계인이 한데 뭉쳐 하나의 단합된 힘을 나타낼때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불황은 곧 종식될 것이다. 채란업자의 단합된 힘에 의해 안정양계산업은 뿌리를 내려 80년대 고도성장에 우리 양계인도 한 몫을 담당할 것이다.